

제약사 유통망에 스타트업 기술력…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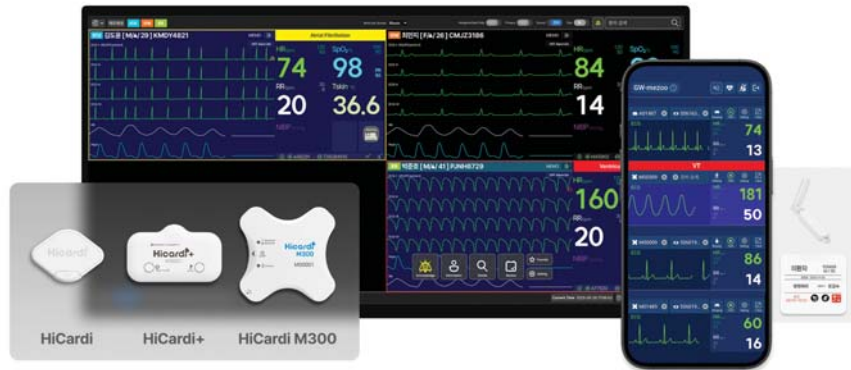
메주, 동아에스티와 파트너십
오는 3월 코스닥 상장 예정
씨어스테크, ‘씽크’ 사업화 속도

국내 제약사의 유통 경쟁력과 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하며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주는 코스닥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메주는 생체신호 측정, 처리, 분석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설계, 생산 등도 내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특히 동아에스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 현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메주는 대표 제품으로 ‘하이카디’를 개발했고 동아에스티가 하이카디 판매를 맡고 있다. 하이카디는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심전도 패치를 환자에 부착하고 스마트폰 등과 연동해 심박수, 체표면 온도, 호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 제약 없이 환자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하이카디’를 통해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화면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확인한다. /동아에스티

특징이다.

동아에스티는 2021년 메주에 초기 전략적 투자(SI)와 후속 투자(팔로온)를 단행하고 2022년 ‘하이카디’ 국내 판권 계약, 2023년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동아에스티는 하이카디, 하이카디플러스 등을 국내 700여 개 이상의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공급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약 53%가 도입했다. 메주와 동아에스티는 전략적 협업을 지속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메주 코스닥 상장 시점은 오는 3월로

예정됐고 신주 134만5000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1만6700원~2만16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225억원~291억원 규모다.

메주는 공모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북미·유럽 등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망 구축, 현지 영업·마케팅 등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출처 다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아에스티 측도 이번 상장은 국내 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메주의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메주 전체 매출에서 동아에스티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83%, 2025년 3분기 누적 81% 등에 달한다.

앞서 코스닥 시장에 안착한 씨어스테크놀로지는 국내 대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자리를 노린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 ‘씽크’ 사업화에 속도를 내며 최근에는 씽크 설치·운영·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씽크 커넥티드 허브’를 열었다.

씽크는 인공지능 기반 병상 감독 기능을 갖춰 환자의 활력 징후와 상태 변화를 24시간 자동으로 감지해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씽크 커넥티드 허브는 씽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실시간 고객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주력 사업인 씽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씽크 사업은 앞서 대웅제약과의 협력으로 본격화 단계에 진입했다. 2024년 3월부터 대웅제약의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씽크 판로가 늘면서 2025년에는 한 해 동안 약 1만2000 이상 병상에 씽크가 장

착됐다.

수익성 개선도 이뤄졌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157억원, 영업이익 68억원을 올렸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00% 급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한 매출은 278억원,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2024년 6월 상장 후 1년 만에 실적 반등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호실적은 대웅제약을 통한 판매 확대가 견인했다. 대웅제약 매출 비중은 2024년 92%, 2025년 3분기 누적 99%까지 커졌다.

씨어스테크놀로지 측은 “향후 병상 확대, 서비스 고도화,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연계까지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자 유치를 넘어 협업 구조가 기업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보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수요나 최신 기술력 향상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에스티팜, 美 바이오텍과 825억 규모 계약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공급망 통합 플랫폼 통해 경쟁력 강화

동아쏘시오그룹의 올리고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회사 ‘에스티팜’은 미국 소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부터 5600만 달러(약 825억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중증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로 상업화 예정인 글로벌 신약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객사 및 제

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다.

이번 수주는 에스티팜 최근 매출액 2737억원(2024년도 연결 매출 기준) 대비 30%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수주 잔고도 전년 3분기 대비 약 30% 가량 증가했다. 에스티팜은 지난해 제2올리고동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성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에스티팜은 글로벌 회사들의 임

상 단계는 물론 상업 생산까지 공략하고 있다. 일관된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공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불순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술·규제·공급망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조기 개발 단계부터 공정·분석·변경허가까지 고객사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 안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 /동아쏘시오그룹

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정’ 위궤양 치료 효과 입증

제일약품의 신약 연구개발 기업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의 위궤양 환자 대상 임상 3상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 ‘거트 앤 리버’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국내 39개의 의료기관에서 위궤양 환자 329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자큐보 20mg을 최대 8주간 투여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자큐보는 높은 궤양 치유율과 임상적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 8주 치료 후 모든 자큐보 투여군 환자(100%)에서 내시경적 궤양 치유가 나타났다. 특히 투여 4주차에서 93.84%의 치유율을 기록해 투여 초기부터 의미있는 회복 양상을 보였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측은 “복용 초기부터 위산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억제하는 자큐보의 약물 특성이 실제 임상 치료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궤양 크기 역시 치료 전 대비 개선됐다. 평균 궤양 크기가 4주 만에 1mm 미만으로 감소했고 8주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궤양이 관찰되지 않았다. 자큐보가 점막 치유 자체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궤양 치료 영역에서 자큐보 경쟁력을 지속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6월에는 자큐보 적응증에 위궤양 치료를 추가하기도 했다. 현재는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궤양 예방을 적응증으로 확보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치료 목적뿐 아니라 예방 영역까지 포함, 산분비 관련 질환 전반에서 자큐보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고함량 비타민으로 구내염 치료” HLB, ‘리라푸그라티닙’ 암종불문 연구

‘오라비텐엑티브정’ 출시

동국제약이 구내염 치료제 전문 브랜드 ‘오라’에서 신제품 ‘오라비텐엑티브정’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라비텐엑티브정은 기존의 오라비텐정을 재단장한 고함량 기능성 비타민이다. 비타민 B2를 활성형으로 변경하

고 활성형 비타민 B6를 추가해 구내염 관리 효과를 높였다.

주성분인 활성형 비타민 3종인 B1, B2, B6는 체내 비타민 B군 결핍과 피로 누적, 체력 저하로 나타나는 구내염을 개선해 준다. 비타민 B6·B3, 판토텐산칼슘, D-비오틴, 엽산, 비타민 C·E, 아연 등 항산화 성분도 더해졌다. /이청하 기자

“미래 항암제 시장 공략”

HLB가 지난 22일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 등록 시스템 ‘클리니컬트라이얼’에 리라푸그라티닙 글로벌 임상 2상 ‘ReFocus202’을 공식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라푸그라티닙은 표적 항암제로,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인 FGFR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암세포 성장, 분화 등과 관련된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해당 임상은 FGFR2 변이를 기준으로 암종에 관계없이 작용하는 ‘암종불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암종불문 치료 전략에 맞춰 임상 설계를 변경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ReFocus202는 미국·프랑스·한국·스페인·영국 등 5개 국가 18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FGFR2 유전자 융합 또는 재배열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아제약 ‘챔쿨 열냉각시트’

영유아 맞춤형 쿨링 패치

동아제약은 영유아맞춤형 쿨링 패치 ‘챔쿨 열냉각시트(사진)’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챔쿨 열냉각시트는 영유아 이마에 알맞은 가로 9cm, 세로 4cm 크기를 갖췄다. 시트를 붙였을 때 눈썹이나 머리카락에 닿는 불편함을 줄였다. 부착면에는



밀착된다. 알로에베라와 판테놀 성분을 더해 피부 자극도 최소화했다. 파라벤, 색소, 향료 등은 첨가하지 않았다.

/이청하 기자